




소비자경보

**병원과 브로커의
불법 제안에 현혹되어
보험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소비자경보 「주의」발령

브로커를 통해 소개받은 한의원에서 허위 영수증을 발급받아
보험금을 부당 편취한 환자들이 최근 보험사기 공범으로
연루된 사건이 있어 소비자 여러분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브로커와 병원에 대하여 보험사기 유죄가 확정된 것은 물론
허위로 보험금을 지급받은 환자들도 보험금을 환수당하거나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는 등 사법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보험사기에 연루되지 않아야 합니다.

소비자경보 발령 배경

실손보험 가입 환자를 유인하는 불법 브로커가 병원과 공모하여
환자로 하여금 보험금을 편취하는 보험사기 수법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실손보험 청구가 불가능한 공진단을 보험금으로 구입할 수 있게 처리해주겠다”고 홍보하며
실손보험 가입 환자를 모집한 브로커 서울시 ○○구 소재 ◇◇◇◇한의원 관계자에게
보험사기 유죄가 확정된 사건이 있습니다

브로커의 불법적인 제안에 현혹되어 실제 공진단을 구입하고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작성된 보험금 청구서류를 이용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은 환자 653명도 보험사기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소비자 여러분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의원 보험사기 사건의 주요 판결내용

브로커

한의원에 실손보험 가입 환자를 소개하고
매출액(진료비)의 30% 또는 매월 5,500만원을 알선수수로 병원으로부터 수취

→ **브로커 조직 대표 1명 보험사기 및 의료법 위반 유죄 확정**

한의원

원장 등은 실제로는 실손보험 청구가 불가능한 보신제(공진단) 등을 처방하고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치료제로 허위의 진료기록부 교부

→ **원장 등 병원 관계자 4명 보험사기 및 의료법 위반 유죄 확정**

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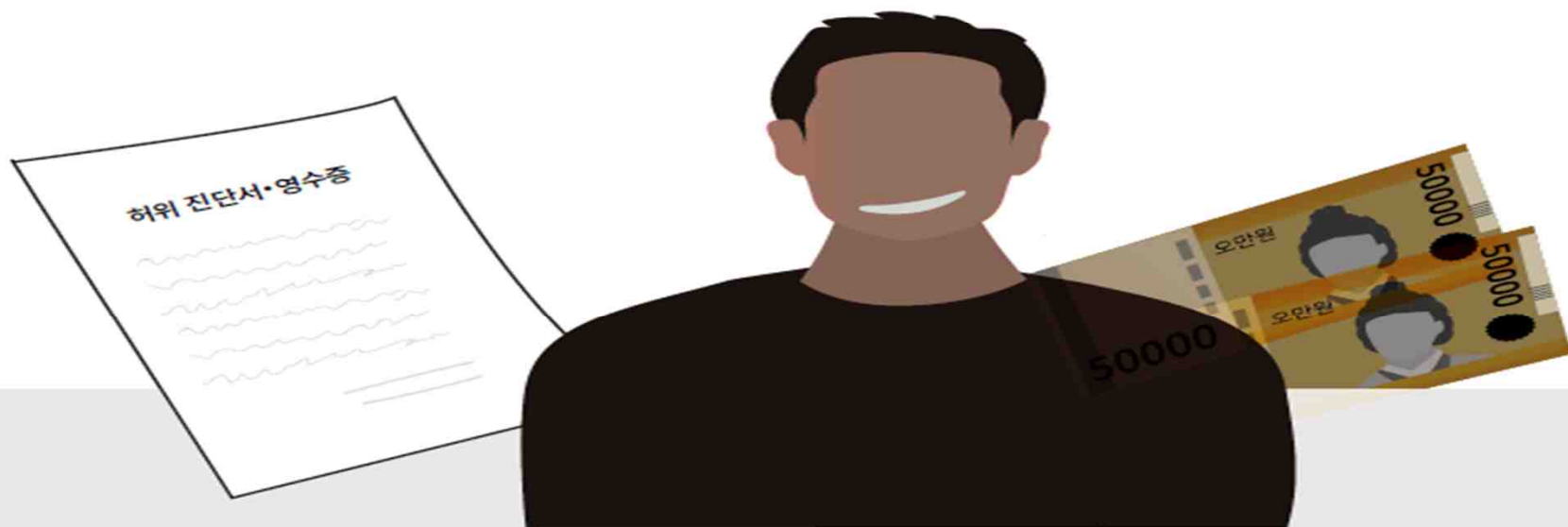
한의원이 발급한 허위의 진료기록부, 영수증 등을 이용하여
보험금 총 15억 9,141만원 부당 편취(1인 평균 244만원)

→ **브로커와 병원 관계자의 보험사기 유죄 판결 선고 이후,
환자 653명에 대하여 부당 편취 보험금 환수 또는
개별 수사·검찰 송치 진행 중**

보험이 보장하지 않은 치료를 받고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면 안돼요!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진단서, 영수증 등을 이용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은
보험사기에 해당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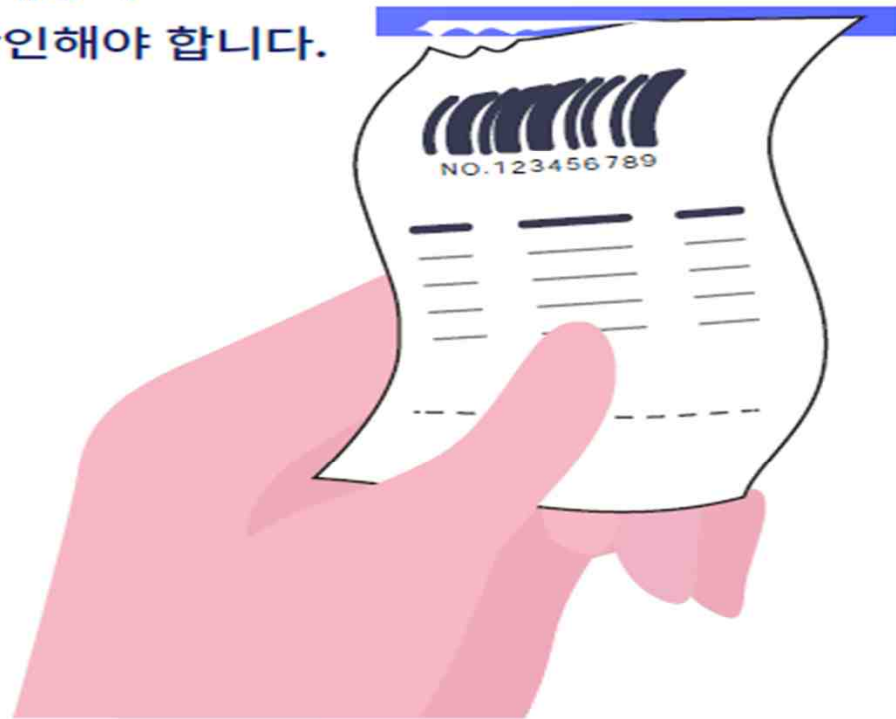
병원이나 브로커가 “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치료사항을 보험처리 해주겠다”는 제안에 현혹되어
불법행위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보험금 청구시 진단서, 영수증의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하세요!

최근의 사례와 같이 병원과 브로커는 물론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은 환자도 보험사기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시 병원이 발급한 진단서, 영수증 등의 내용이 실제 진료받은 내용대로 작성되었는지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사기를 제안하는 병원과 브로커는 적극 신고해주세요!

병원이나 브로커에게 보험사기 제안을 받거나 의심 사례를 알게 된 경우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적극적인 제보 부탁드립니다.

신고내용이 보험사기로 확인되면 생명·손해보험협회 또는
보험회사가 지급기준에 따라 최대 10억원의 포상금을 드립니다.

보험사기 신고방법

금융감독원 『보험사기 신고센터』

- ①전화(1332→4번 금융범죄→4번 보험사기), 팩스(02-3145-8711)
- ②우편(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대응단)
- ③인터넷(금융감독원 홈페이지 www.fss.or.kr → 우측의 '보험사기신고')

각 보험회사홈페이지 내 『보험사기 신고센터』





금융감독원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